

억양을 통한 부정문의 중의성 해소 방안 연구*

Disambiguation of Negative Sentences by Intonation

김 소 희** · 공 은 정** · 강 선 미** · 이 용 재**
Sohee Kim · Eunjong Kong · Sunmi Kang · Yongjae Lee

abstract

The negative sentence may have an ambiguity depending on which constituent of the sentence is negated. In case of sentence final adverbials, whether they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egation generates the semantic ambiguity. Since sentences with ambiguous meanings have the same word order, the differences of the meanings in different contexts should be manifested with intonational cues. This article represents how intonation contributes to the disambiguation in negative sentences with ambiguity and which phonological/phonetic cues are specifically used in the course of the disambiguation.

Keywords: pitch accent, phrase accent, boundary tone, scope of negation.

1. 서 론

영어의 부정문은 부정(negation)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문장의 해석이 다양하다. 문장의 일부분이 아닌 문장의 전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해석이 다양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는 부정이라는 의미요소가 문장의 어느 부분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느냐의 영역 차이라고 하겠다. 문장 끝에 부사어를 포함하는 부정문의 경우, 부정의 의미영역에 부사어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달라진다. 표면적으로 동일하지만 영역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문의 중의성은 구조적 차이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문맥에서 서로 다른 억양을 통해 실현되어야만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부정어를 포함하는 문장에서 부사가 부정의 대상(초점)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중의성을 억양의 음운/음성 단서를 이용하여 해소할 수 있음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서들이 이용될 것인가를 기술하는 것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Brain Korea 21- 핵심분야'의 지원으로 연구된 것으로 한국음성과학회 학술발표회(2000.10.14)에서 발표된 바 있음.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을 목적으로 한다.

의미가 억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의미적, 구조적 측면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의미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초점)과 억양의 연구에서, 화자는 초점을 받는 요소에 의도적으로 피치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한다는 Bolinger (1972a)의 견해는 Focus-to-Accent(FTA) 이론으로 여러 학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부정의 영역과 억양의 관련성 연구에 적용할 경우, 부정의 영역에서 배제된 부사와는 달리 부정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부사어에는 FTA에 의하여 피치 악센트가 부여될 것이며, 이때 부여되는 피치 악센트의 유무 혹은 피치악센트의 종류가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음운론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피치악센트 이외에도 구성조(Phrase accent)와 경계성조(Boundary Tone)가 의미를 전달하는 억양의 음운단서로 사용될 수 있다. Janet Pierrehumbert and Julia Hirschberg (1990)에 따르면 영어의 억양의 의미는 피치악센트, 구성조 그리고 경계성조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담화상에서 그 역할이 다른 즉, 중의성을 띤 문장은 구성조와 경계성조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히, 문장 끝에 위치하는 부정의 대상이 되는 문장성분이 단어(word)수준을 넘어 구(phrase), 절(clause)로 그 범위를 넓혀갈 때, 문장 성분에 상응하는 중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성분이 단어수준을 넘어선 경우에 발생하는 중의성은 피치악센트의 유무와 그 종류로 해소되기 어렵다. 구와 절의 마지막 내용어에 주어진 악센트가 부정의 초점에 의한 피치 악센트인지, 중립문장으로서의 핵강세로서의 악센트인지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구성조와 경계성조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음운 단서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중의성을 지니는 부정문에서 드러나는 억양의 음성/음운적 차이가 기타의 이유가 아닌 부정의 영역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 부정/긍정의 문장쌍과 부사유무의 문장쌍의 억양을 비교할 것이다. 각 쌍에서 두드러지는 억양 차이가 중의성을 지니는 부정문에서 드러나는 억양의 음성/음운적 차이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피치악센트, 구성조 그리고 경계성조의 차이가 부정의 영역차이에 의한 결과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실험을 하였다.

실험 1: 부정의 영역 차이로 인하여 중의성을 지니는 부정문의 쌍에서 억양 차이 기술.

실험 2: 부정/긍정의 문장쌍과 부사유무의 문장쌍의 억양 차이를 기술하여 실험 1의 결과와 비교.

2. 실험 1

실험 1에서는 문장 끝에 위치하는 부사어가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느냐의 차이로 인하여 중의성을 지니는 부정문의 억양 차이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2.1 실험 자료 및 절차

다수의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 대화문의 형태로 이루어진 실험문장을 제시하고, 문맥을 통해서 실험 문장의 중의성을 유추하도록 한 후, 의미의 차이를 인식한 경우에만 발화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원어민 화자들은 K 대학교 소속의 교환학생 3명(J, D, O; 20대 초반의 여자 2명과 남자1명)과 외국어 강사 1명(S; 30대 초반)으로 이루어졌다(1명은 캐나다, 3명은 미국을 국적으로 했다). 이들이 한국어에 노출된 기간은 6개월 미만이었다. 조용한 녹음실 환경에서 Shure SM58 마이크와 Sony MZ-R30 DAT(Digital Audio Tape)을 이용하여 발화자료를 녹취한 뒤, Pitch Work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치 악센트, 구성조 종류와 위치, 경계성조의 종류 그리고 피치 범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발화자료의 Pitch Tracking과정은 Pierrehumbert의 억양 음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실험 1에 사용한 문장은 다음(1)과 같으며, 발화자에게 문맥과 함께 제시되었다. (제시된 문맥은 부록 참조바람, []는 부정의 영역을 나타내며 발화자에게는 표시되지 않은 자료를 제시)

부사어가 단어(word)인 경우

- WA a . [I didn't close the door] deliberately.
- b . [I didn't close the door deliberately.]
- WB a . [He didn't attend the meeting] accidentally.
- b . [He didn't attend the meeting accidentally.]

부사어가 구(Phrase)인 경우

- PA a . [I didn't meet the girl] to annoy my mom.
- b . [I didn't meet the girl to annoy my mom.]
- PB a . [I didn't sit up all right] to go through the job.
- b . [I didn't sit up all right to go through the job.]

부사어가 절(Clause)인 경우

- CA a .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rich.
- b .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rich.]
- CB a . [I didn't tell him to do the work] because he is clever.
- b . [I didn't tell him to do the work because he is clever.]

J화자는 부사어가 구인 경우의 두 번째 문장에서, 문맥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발화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실험 1 분석에 사용된 총 자료수는 12문장×4명의 피험자×2번 = 96개에서 4문장×2번이 제외된 88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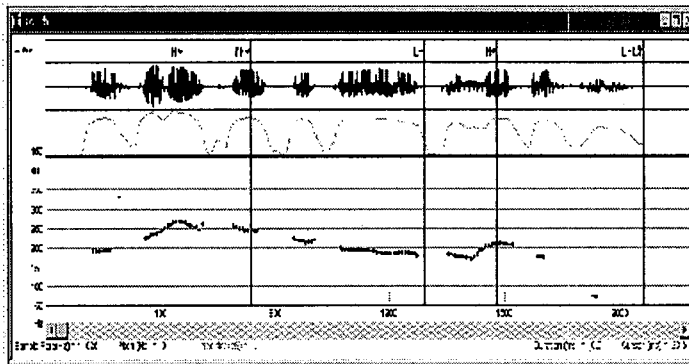
2.2 실험 결과 및 논의

먼저 부사어가 단어인 경우를 살펴보자. 실험 문장의 a 와 b는 부정의 영역이 문장 끝

에 위치한 부사어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중의성을 띤다. WA, WB 문장 모두 a는 부사어가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며, b는 부정의 영역에 포함된 경우이다. WA-a 문장은 화자가 (방이 너무 덥다든지 여타의 이유로) 일부러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의미를 구현한 경우이고, A-b 문장은 화자는 문을 닫기는 했지만 (열쇠 등을 차안에 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수로 닫은 것이지) 일부러 닫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구현한 경우이다. WB-a 문장은 그가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반면, WB-b 문장은 그가 회의장에 참석한 사실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를 구현한 경우다. 발화자 모두 실험에 쓰인 부정문의 중의성을 인정했으며, 충분히 의미를 이해한 후 발화하였다. 발화 문장에는 Pierrehumbert의 억양음운론에 근거하여 문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구성성분에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 성조의 위치와 종류를 표시하였다.

부사어가 단어인 경우는 부사어의 피치악센트 종류가 a, b 두 문장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어가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가적인 의미로 덧붙은 문장 A-a에는 16개의 발화 문장 중 14개가 부사어가 피치악센트 H*로 구현되지만 부사어가 부정의 대상이 되어 부정의 의미영역에 포함되는 문장 A-b 경우, 16개의 발화 문장 중 13개가 부사어에 피치악센트 L+H*가 나타났다. 문장 B의 a, b 또한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피치악센트 L+H*는 피치악센트 H*보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억양곡선을 그린다(그림 1, 2 참조). 구성조는 a번과 b번 발화 문장에서 일관성 있는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구성조는 화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중의성 해소에 일관성 있는 단서로 사용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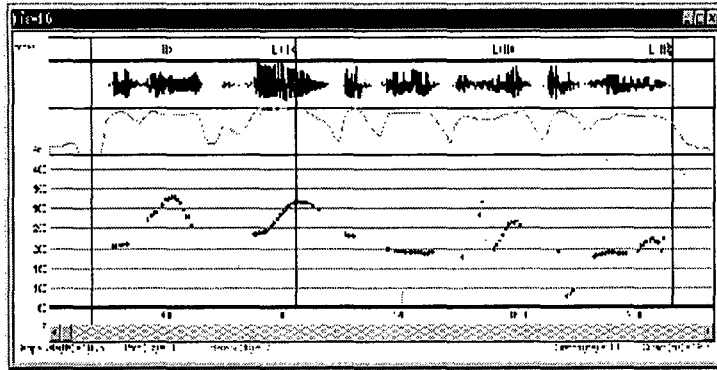
a, b 두 문장은 경계성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화자가 a 문장에서는 L-L%를 사용하여 발화를 끝맺는 반면, b번 문장은 L-H%를 사용하고 있다(그림 1, 2 참조). 문장의 마지막 피치악센트에서 발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현격히 하강하는 경계성조 L-L%와 대조적으로 경계성조 L-H%는 마지막 피치악센트에서 발화가 끝나는 순간에 이르면서 피치를 현격히 혹은 완만하게 높이는 성조이다.



I didn't close the door deliberately.

H* L-L%

그림 1. Pitch Work를 이용한 WA-a 문장의 억양곡선



I didn't close the door deliberat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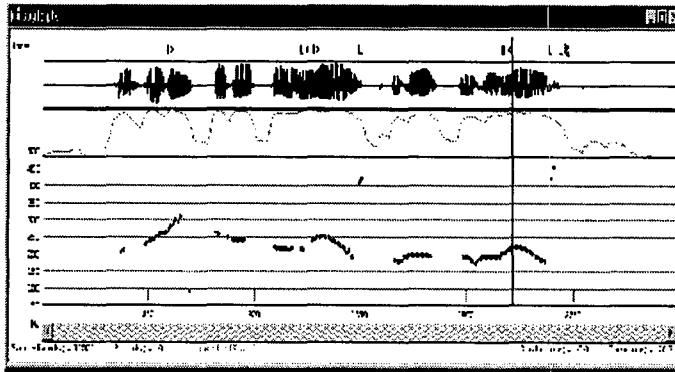
L+H* L-H%

그림 2. Pitch Work를 이용한 WA-b 문장의 억양곡선

두 번째로, 부사어가 구인 경우를 살펴보자. 실험 문장의 a와 b는 부정의 영역이 문장 끝에 위치한 부사어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중의성을 띤다. A, B 문장 모두 a는 부사어가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며, b는 부정의 영역에 포함된 경우이다. PA-a 문장은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 소녀를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PA-b 문장은 소녀를 만난 것이 엄마를 괴롭히려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PB-a 문장은 일을 다 마치려고 (일을 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뜻이며, PB-b 문장은 (밤을 새우기는 했으나) 일을 다 마치기 위해 (일을 하면서) 밤을 새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부사어가 구인 경우 1명의 발화자가 PB 문장의 중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녹음을 포기하였으나 다른 발화자는 문장을 이해하고 중의성을 염두하여 실험문장을 발화하였다. 문장 끝에 위치한 부사가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지 포함되는지에 따른 중의성은 구의 경우에도 음성적 차이를 유발하였다.

부사어가 단어인 경우와 달리 부사어가 구인 경우는 피치악센트의 행동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구성조와 경계성조는 일관된 차이를 보여주었다. 구성조는 화자의 의지에 따라 중간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피치악센트가 강세와 관련한 위치에 부여되는 것과는 다르게, 구성조는 피치악센트 사이에 나타나는 강세음절과 관련없는 성조를 일컫는다. 따라서 H-는 강세음절과 관련없이 피치악센트 사이에 나타나는 고성조이고, L-는 강세 음절과 관련없이 피치악센트 사이에 나타나는 저성조를 가르킨다. 부사어가 구인 부정문 실험문장에서 화자는 중간구를 설정할 때 부정사구 바로 앞에 설정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었지만, 구성조가 실현될 경우 a, b 문장은 다른 종류의 구성조로 실현되었다(그림 3, 4 참조). 즉, PA-a를 발화한 문장 14개 중 10개의 발화에서 구성조는 L-로 실현된 반면, PA-b를 발화한 문장 16개 중 9개에서 구성조는 H-로 실현되었다. PB의 a, b 문장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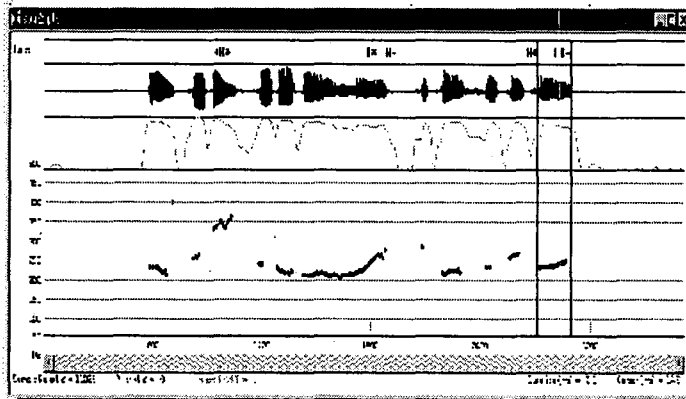
경계성조의 경우도 a와 b를 발화한 자료에서 억양상의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났다. PA-a 문장의 14개의 발화문장 중 12개에서 경계성조가 L-L%로 실현되었으며, PA-b의 발화문장 16개 중 12개에서 경계성조가 L-H%로 실현되었다(그림 3, 4 참조).



I didn't meet the girl to annoy my mom

L- L-L%

그림 3. Pitch Work를 이용한 PA-a 문장의 억양곡선



I didn't meet the girl to annoy my mom

H- 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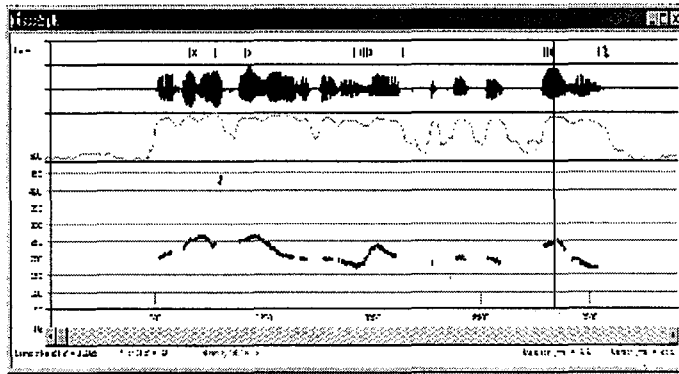
그림 4. Pitch Work를 이용한 PA-b 문장의 억양곡선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절이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도 실험 문장의 a 와 b는 부정의 영역이 문장 끝에 위치한 부사어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중의성을 띤다. A, B 문장 모두 a는 부사어가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며, b는 부정의 영역에 포함된 경우이다. CA-a 문장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며, CA-b 문장은 그를 좋아하지만 그가 부자라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진다. CB-a 문장은 그가 영악하기 때문에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CB-b 문장은 그에게 일을 시켰지만 그가 영리하기 때문에 시킨 것을 아니라는 의미이다. 발화자 모두 실험문장의 중의성에 동의했으며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고 발화하였다. 중의성을 지니는 두 문장이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화자가 사용한 음성적 단서는 다음과 같다.

피치악센트는 중의성을 해소하는데 일관성 있게 사용된 음성적 단서는 아니었다. 부정

의 의미가 부사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b 문장에서 부사절 내의 마지막 내용어 rich와 clever에 L+H*의 피치악센트를 부여하는 등 피치악센트의 종류는 다양하게 드러났으나, 모든 화자에 걸쳐 발견되는 일관적 현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치악센트의 종류가 문장의 중의성을 구별 단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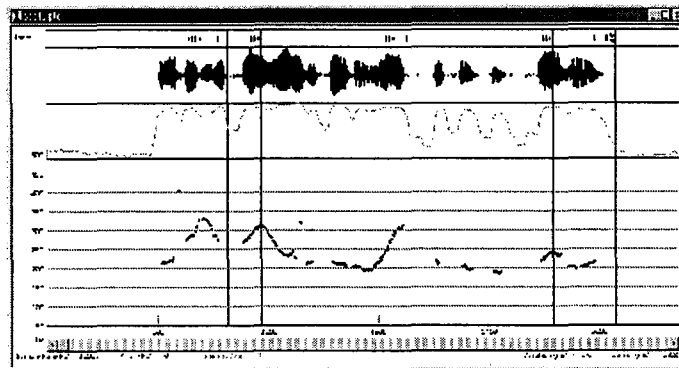
구성조와 경계성조는 a, b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는데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다. 구성조의 경우, 문장 CA-a에서는 16개의 발화자료 중 13개에서 L- 구성조가 나타난 반면, CA-b 문장에서는 16개의 발화 자료 중 14개에서 H- 구성조가 나타나거나 구성조가 실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3, 4 참조). 경계성조 또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CA-a의 16개의 발화 자료 중 16개 문장 모두에 현저한 하락의 L-L% 경계성조가 나타났으며, CA-b의 16개의 발화자료 중 12개에서 L-H% 혹은 H-L%의 경계성조가 나타났다(그림 3, 4 참조). CB의 a, b문장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rich.

L- L-L%

그림 5. Pitch Work를 이용한 CA-a 문장의 억양곡선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rich.

H- L-H%

그림 6. Pitch Work를 이용한 CA-b 문장의 억양곡선

이상의 실험1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문의 중의성은 억양의 차이로 명백히 구분되며, 피치악센트와 구성조, 경계성조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중의성을 해소하는 음성/음운 단서라고 할 수 있다. 피치악센트와 구성조, 경계성조가 중의성 해소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부사어가 단어인 경우, 구이거나 절인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사어가 단어인 경우는 구성조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지만 피치악센트와 경계성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작용하여 의미차이를 구분한다. 반면에, 부사어가 구이거나 절인 경우는 피치악센트보다 구성조와 경계성조의 차이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실험 2

실험2에서는 실험1의 결과가 부정의 영역에 기인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정/긍정, 부사 유/무의 쌍을 녹음하여 비교할 것이다. 즉, 실험1의 a와 b 사이에 상이한 행동이 나타나는 요인들을 부정어와 부사어에 중점을 두어, 두 가지 요소(부정어, 부사어) 가운데 한가지 요인만 작용하도록 통제된 실험문장 1~4를 만들어 녹음한다.

2.1 실험 자료 및 절차

다수의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 대화문의 형태로 이루어진 실험문장을 제시하고,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중립적인 상황에서 발화하도록 하였다. 실험2에 참여한 원어민 화자들은 실험1의 화자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조용한 녹음실 환경에서 Shure SM58 마이크와 Sony MZ-R30 DAT(Digital Audio Tape)을 이용하여 발화자료를 녹취한 뒤, Pitch Work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치 악센트, 구성조 종류와 위치, 경계성조의 종류 그리고 피치 범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발화자료의 Pitch Tracking과정은 Pierrehumbert의 억양 음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실험2에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긍정문장
2. 긍정문장 + 부사어
3. 부정문장
4. 부정문장 + 부사어

부사어가 단어(word)인 경우

- WA. 1 I closed the door.
 2 I closed the door deliberately.
 3 I didn't close.
 4 I didn't close the door deliberately.

- WB. 1 He attended the meeting.
 2 He attended the meeting accidentally.
 3 He didn't attend the meeting.
 4 He didn't attend the meeting accidentally.

부사어가 구(Phrase)인 경우

- PA. 1 I met the girl.
 2 I met the girl to annoy my mom.
 3 I didn't meet the girl.
 4 I didn't meet the girl to annoy my mom.
- PB. 1 I sat up all right.
 2 I sat up all right to go through the job.
 3 I didn't sit up all right.
 4 I didn't sit up all right to go through the job.

부사어가 절(Clause)인 경우

- CA. 1 I like him.
 2 I like him because he is rich.
 3 I don't like him.
 4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rich.
- CB. 1 I told him to do the work.
 2 I told him to do the work because he is clever.
 3 I didn't tell him to do the work.
 4 I didn't tell him to do the work because he is clever.

실험2 분석에 사용된 총 자료 수는 24문장×4명의 피험자×2번=192개이다.

2.2 실험 결과 및 논의

실험2는 실험1에서 나타나는 억양 차이가 부정의 영역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선 부정을 통제한 뒤, 부사어의 유무차이로 대립되는 두 문장의 억양곡선을 비교해 보았다. 즉, 긍정문(문장1)과 긍정문에 부사어가 추가된 문장(문장2)의 쌍의 억양곡선 차이와 부정문(문장3) 부정문에 부사어가 추가된 문장(실험1의 문장a)의 억양곡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문장3과 문장a의 쌍에 나타나는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성조의 현상이 문장1과 문장2의 쌍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면 이는 문장a의 부사어는 부정의 의미와는 관련 없이 추가된 것이라는 근거가 될 것이다. 문장b의 부사어는 부정의 의미영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장a와 구분되며, 따라서 실험1에 나타나는 억양현상의 차이는 부정의 영역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실험2의 결과는 실험1에서 얻은 음성/음운 단서인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성조를 중심으로

로 서술할 것이다.

우선, 피치악센트의 경우를 살펴보자. 부사의 유무로 구분되는 긍정문 WA-1과 WA-2의 경우, WA-1의 마지막 내용어인 door에 H* 피치악센트가 부여되었고 WA-2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내용어인 deliberately의 강세음절에 H* 피치악센트가 부여되었다. 영어 문장은 성조단락(tone unit)의 가장 마지막 내용어의 강세 음절에 가장 들리는 부분으로서 핵강세(nuclear stress)가 부여되는데, 이것은 곧 성조음절(tonic syllable)이 된다. 중립적으로 발화한 WA-1과 WA-2 문장에서의 H* 피치악센트는 문장의 마지막 내용어의 강세 음절이 성조 음절(tonic syllable)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핵강세임이 분명하다.

부사의 유무로 구분되는 부정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WA-3와 실험1의 WA-a 문장을 살펴보면, WA-3은 부사가 없는 부정문이며 A-a는 부정문의 끝에 부사어가 부가된 문장이다. 발화 결과, WA-3 문장은 긍정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내용어인 door에 H* 피치악센트가 부여되었고, WA-a문장도 마지막 내용어인 deliberately에 H* 피치악센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WA-3과 WA-a에 나타난 H* 피치악센트 역시 문장의 마지막 내용어의 강세음절이 성조음절(tonic syllable)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핵강세(nuclear stress)이다. 그렇다면 WA-1과 WA-3의 door에 나타나는 피치악센트나 WA-2와 WA-a의 deliberately의 강세음절에 나타나는 피치악센트는 모두 같은 이유로 부여된 것이다.

WA-a 문장의 핵강세가 H*로 발화된 것으로 미루어 WA-b의 deliberately의 강세음절에 나타난 L+H*는 다른 이유로 인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WA-2나 WA-a는 각각 긍정문과 부정문에 부사어가 덧붙여진 문장으로, WA-a 문장에서 마지막 내용어로서 부사어가 성조음절(tonic syllable)이 되어 핵강세 H*가 부여된 반면, WA-b문장은 부사어가 부정의 영역내에 포함되어 의미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므로 L+H*가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피치악센트의 차이를 의미와 연관시켜보면, WA-b의 경우, 부정의 의미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부사어이므로 부사어에 초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험2의 문장1과 문장2 쌍에서 드러나는 피치악센트의 성질로 미루어 볼 때, WA-b의 부사어는 문장의 마지막 내용어로서의 핵강세(nuclear stress)와는 다르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성조 살펴보자.

부사어가 구인 경우, 부사구가 있는 긍정문(모든 1번 문장)과 부사구가 없는 문장(모든 2번 문장), 즉 부정을 통제하고 부사구의 유무만이 존재하는 문장 쌍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부연적인 의미의 부사구가 존재하는 문장2의 경우, 중간구 사이에 L-의 구성조가 실현되었다. 마찬가지로, 부사구의 유무로 구분되는 부정문의 경우인 문장 3과 a의 쌍도 문장 1과 문장2의 쌍에서처럼 부연적인 이유가 부가될 경우 중간구 사이를 L- 구성조로 실현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부사어가 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다. 부사가 없는 긍정문 CA-1에서 긍정문 CA-2 끝에 부사절이 덧붙여지면서 12쌍의 문장 중 9쌍의 문장에서 L- 구성조가 부여되었다. CA-a는 CA-3에 부사절이 덧붙여진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부사어가 없는 부정문에 부사절이 덧붙여질 때 16개 문장 중 13개에 L- 구성조가 부여되었다.

즉, 부사어가 구와 절인 어느 경우에도, 부사어의 유무로 구별되는 긍정문 A-1과 A-2

의 쌍과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있는 부정문 A-a의 두 중간구 사이에 L- 구성조가 부여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의 의미가 부사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는 부정의 의미와 관계없이 부가되었다는 의미구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실험1의 문장b의 (부사가 구이거나 절이거나 공통적으로 중간구 사이를 H- 구성조나, 혹은 중간구를 설정하지 않는) 억양패턴은 의미의 차이로 설명되어야 한다. b문장은 부사어가 부연적인 이유로서 부정의 문장에 부가된 것이 아니라 부사어가 이미 부정문의 영역내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b는 문장a와는 달리 중간구가 설정되지 않거나, 중간구 사이가 H- 구성조로 구현됨으로서 선행 중간구와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음성적으로도 확연하게 보여주게 된다. 중간구 사이에 H 구성조가 나타나거나 구성조가 나타나지 않는 구성조의 현상의 변화는 부정의 의미가 유발하는 음성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계성조를 살펴보자.

부사어가 단어인 경우 1과 2문장은 모두 L-L% 경계성조 문장을 끝맺고 있다. 즉, 부사의 유무로 구분되는 긍정문은 발화를 끝맺는 경우 L-L%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부사의 유무로 구분되는 부정문 3과 a 문장도 모두 L-L% 경계성조로 문장을 끝맺고 있다. 부정의 문장이나 부정문에 추가적으로 부사어가 덧붙여진 문장에서도 모두 발화를 끝맺는 경우에는 L-L%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부사어가 구와 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1과 2의 긍정문이 L-L% 경계성조로 문장을 끝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3과 a의 부정문도 경계성조가 L-L%로 실현되었다. 반면에 문장6은 부정의 의미가 부사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문장2와 문장5와는 다르게 H%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계성조의 차이는 부정의 영향이 만들어내는 음성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험2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사어가 단어, 구, 절인 경우, 부사의 유무로 구분되는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상관없이 발화의 마지막에 L-L%가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1의 b문장은 대부분의 발화문장에서 L-H% 경계성조로 구현되었다. 의미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긍정문이나 부정문에 부가적으로 부사어가 추가된 2와 a와는 달리 b문장은 부정의 의미가 문장 끝의 부사어에 영향을 미치는 문장이다. 따라서 a와 b의 경계성조 차이는 부정의 의미 차이가 유발하는 음성적 결과이다.

실험2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2는 실험1에서 나타나는 억양 차이가 부정의 영역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선 부정을 통제한 뒤, 부사어의 유무차이로 대립되는 두 문장의 억양곡선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문장 중, 긍정문(문장1)과 긍정문에 부사어가 부가된 문장(문장2)의 쌍과 부정문(문장3) 부정문에 부사어가 부가된 문장(실험1의 문장a)쌍의 억양곡선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문장3과 문장a의 쌍에 나타나는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성조의 현상이 문장1과 문장2의 쌍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장a의 부사어는 부정의 의미와는 관련 없이 부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b의 부사어는 부정의 의미영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장a와 구분되므로, 따라서 실험1에 나타나는 억양현상의 차이는 부정의 영역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동일 문장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가 음성적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은 Janet Pierrehumbert and Julia Hirschberg(1990)에서 연구된 바 있다. 담화에서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를 살펴본 위 연구에 따르면 영어 억양의 피치악센트와 구성조, 경계성조의 조합은 문장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피치악센트는 그 종류에 따라 담화의 의미해석에 달리 기여하고, 구성조는 종류에 따라 중간구(intermediate phrase) 사이의 관계를, 경계성조는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

H* 피치악센트는 화자가 청자와 공유하고자하는 정보에, L+H*의 피치악센트는 의미를 대조, 수정 혹은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피치악센트들이다. 중간구의 경우, H- 구성조로 실현되었다면 화자는 해당 중간구의 의미가 뒤따르는 중간구와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되기를 기대하는 반면에, L- 구성조로 실현되었다면 뒤따르는 중간구와 의미적 관련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H% 경계성조가 나타나는 문장은 청자가 뒤이은 발화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원할 때 사용되며, L%는 다음 억양구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실험1과 실험2에서 중의적 부정문을 의미적으로 구분하는데 피치악센트(pitch accent), 구성조(phrase accent), 경계성조(boundary tone)가 억양의 음성/음운 단서로 사용되는 것을 밝혔다. 의미적 측면에서 부정의 영역 차이가 중의성을 유발했다면, 따라서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성조의 차이 또한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1에 나타난 중의적 문장의 억양 음성차이 또한 Janet Pierrehumbert and Julia Hirschberg(1990)의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피치악센트는 부사어가 단어인 경우에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의 영역이 문장 끝의 부사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H*의 피치악센트가 사용되지만 부정의 영역이 부사어를 포함하여 부정의 의미가 부사어에 영향을 미치면 부사어가 L+H* 피치악센트가 나타났다. 피치악센트 L+H*는 의미를 대조, 수정 혹은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한다면, 실험1의 피치악센트 차이는 부정의 의미로 인한 강조적 의미가 억양으로 실현된 것이다.

구성조는 부사어가 부사구, 부사절인 경우에 중의성 해소에 기여한 단서이다. 실험1과 실험2에 따르면 부정의 영역이 부사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L- 구성조를, 포함하는 경우는 H- 구성조를 부여한다. 구성조가 가지는 의미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구성조는 선행 중간구와 후행 중간구 사이의 의미해석 관계를 결정하여 억양의 의미에 그 영향을 미치므로, 실험1 a문장의 두 중간구 사이에 나타나는 L- 구성조는 선행 중간구가 의미해석에 있어서 후행 중간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H- 구성조는 선행하는 중간구가 뒤따르는 부사어의 의미해석상의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 1의 b문장에서 부사구는 앞서는 중간구가 포함하는 부정의 요소의 영향을 받아야 하므로, 화자는 H-구성조를 사용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중간구가 아닌 하나의 중간구로 발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반면에 실험 1의 a문장의 부사구는 부정문에 뒤따르는 부가적인 요소이므로 b문장의 경우와 달리 부정의 요소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따

라서 화자는 의미의 전달을 위해 H- 구성조가 아닌 L-구성조로 발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성조는 중의적 부정문의 부정의 영역에 따른 차이가 유발하는 의미 차이를 해소하는 음운/음성적인 단서로 사용되며, 억양이 의미해석에 미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경계성조는 부사어가 단어, 구, 절인 모든 경우에 중의적 문장에 L%와 H%의 경계성 조차이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경계성조가 의미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억양구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부정의 영역에 부사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미 부사절과는 관계없이 선행 중간구가 부정되었으므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모두 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의 영역에 부사어가 포함되는 경우, 부정하는 정보는 부사어가 되므로 또 다른 부사어를 발화하려는 의지가 H%를 통해 암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H% 경계성조가 나타나는 억양구는 해당 억양구가 뒤이은 발화와의 관계 내에서 해석되길 원할 때 사용하며, L%는 다음 억양구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험1의 b에서, 부사어는 부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담화에서 이와는 다른 대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자가 실제로 발화하지는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다른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는 자신이 발화 끝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의 발화를 해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H%를 사용한 것이라는 의미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후행 억양구와 관련을 고려하여 해당 억양구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H%의 경계성조를 사용하게 된다. 즉, 경계성조의 차이 역시 부정의 영역에 따른 차이가 유발하는 음운/음성적 단서이므로, 억양이 의미해석에 미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기호. 1999. *담화에서의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여름특강 ms.
- [2] Beckman, M. & Gayle M. Ayers. 1994. "Guidelines for ToBI Labelling, vers 2.0. Ms. and accompanying speech materials," *Ohio State University*.
- [3] Beckman, M & J. Hirschberg. 1994. "The ToBI annotation conventions Ms. and accompanying speech materials," *Ohio State University*.
- [4] Beckman, M & Pierrehumbert. 1994. "Intonational Structure in Japanese and English," *Phonology Yearbook 3*, pp. 15-70.
- [5] Pierrehumbert, J. B. & J.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egan, & M. E. Pollock (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MIT Press, pp. 271-311.
- [6] Taglicht, J (1984) *Message and Emphasi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99-141.

접수일자: 2000. 10. 23.

게재결정: 2000. 11. 24.

▲ 김소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pharao2@nownuri.net

▲ 공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mensonage@hotmail.com

▲ 강선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dearsunny@hanmail.net

▲ 이용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3 (O)

E-mail: yjlee@mail.korea.ac.kr

부 록

부사어가 단어인 경우

A; Why did you leave the door open.

B; It's too hot here, isn't it?

a. I didn't close the door deliberately

A; Are you crazy? You did close the door leaving the key inside.

B; Oh my God. I thought I had the key with me.

b. I didn't close the door deliberately

A; We've waited for him to show up all this morning.

B; Don't blame him. He was in traffic jam.

a. He didn't attend the meeting accidentally.

A; Why he is here? He must find the wrong seminar room.

B; No. I don't think so. Today's subject is his interest.

b. He didn't attend the meeting accidentally.

부사어가 구인 경우

A; Your mom is upset.

B; That's what I want.

a. I didn't meet the girl to annoy my mom.

A; Are you still dating with her?

Your mother doesn't like her.

B; I know. But, we are doing a project together.

b. I didn't meet the girl to annoy my mom.

A; How is going your new project?

Deadline is coming, isn't it?

Nevertheless, you seem to be in a pretty good condition.

B; I didn't sit up all night to go through the job.

That job needs much concentration.

a. I didn't sit up all night to go through the job.

A: You look tired. The new project must have troubled you.

B: I had a birthday party yesterday.

b. I didn't sit up all night to go through the job.

부사어가 절인 경우

The reason I don't like him is that he is rich.

a.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rich.

That he is rich is not the reason I like him

b.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rich.

The reason I didn't tell him to do the work is that he's clever

a. I didn't tell him to the work because he's clever.

That he's clever is not the reason I tell him to do the work.

b. I didn't tell him to the work because he's clever.